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뉴스레터 (2025년 11월 호)



CST 개교 140주년

2025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총동문회, 인천 계산중앙교회에서 성황리에 개최



〈사진: 총동문회 단체사진〉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이하 CST) 총동문회가 2025년 10월 24일(금), 인천 계산중앙교회(담임목사이자 총동문회 회장 최신성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총동문회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졸업생과 재학생이 한자리에 모여 과거의 추억을 되새기며, 새로운 비전과 연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였다.

총동문회는 박동식 총무(서초중앙교회)의 사회와 전성국 회계(호산나교회)의 기도로 시작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 교육국과의 협력 속에 15년 이상 이어져 온 ‘목회최고지도자 수료증 전달식’ 및 교육국 총무상 시상식으로 이어졌다. 사회는 윤석호 교육국 행정부장 목사가 맡았으며, 기감 교육국을 대표해 김두범 총무가 2025년 5월 졸업한 기감 소속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인 이상욱, 남인보, 윤성은, 홍성찬(총장상 수상자), 한선종, 오천수 박사(총장상 수상자)에게 수료증과 기념 선물을 전달했다. 특히 남인보 박사는 탁월한 연구와 프로젝트 성과로 교육국 총무상을 수상했다.



〈사진: 총동문회 사회를 보는 최신성 회장〉



〈사진: 60여명의 동문과 재학생 참석〉

이어진 최신성 회장의 환영사는 재치와 유머 속에 동문 간의 따뜻한 유대를 강조하며 큰 박수를 받았다. 이어서 원로 동문들의 소개가 이어졌는데, 전용재 전 감독회장(전 불꽃교회), 송기성 목사(전 정동교회), 조경열 목사(전 아현교회), 왕대일 감리교신학대학교 석좌교수 등 한국교회와 신학계의 거목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동문 중 김희헌 한신대학교 제8대 신학대학원장과 서영석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장 겸 대외협력 부총장이 축하 인사를 전하며, 모교와의 긴밀한 협력과 상생을 다짐했다.



〈사진: 왼쪽부터, 왕대일 교수, 조경열 목사, 송기성 목사, 전용재 전 감독회장, 최신성 회장〉



〈사진: 동문회 후 식사〉

CST, “Compassion, Justice, and Belonging”의 가치로 나아가다

이경식 CST 국제협력 수석 부총장은 학교를 대표해 제프리 관(Jeffrey Kuan) 및 그랜트 하기야(Grant Hagiya) 공동 총장의 인사를 전하며, 학교의 최신 소식을 상세히 보고했다.

그는 “CST는 더 이상 20년 전의 백인 중심 신학교가 아니라, 인종과 문화, 종교를 넘어서는 진정한 글로벌 신학 공동체로 성장했다”고 소개했다. 현재 학생의 70%가 유색인종, 40%가 국제학생, 그리고 42개 이상의 신앙 전통과 문화 속에서 학업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400명을 훌쩍 넘는 한인 동문을 포함한 국제 네트워크, 45명 이상의 교수진, 그리고 한인 교수들(이경식, 김남중, 송민환)의 지속적인 확대와 네트워트가 모교에서 긍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설명했다.



〈사진: 새로 이전한 캠퍼스를 보여주며 학교 소식을 나누는 이경식 부총장〉

특히 CST가 추구하는 핵심 가치인 Compassion(연민), Justice(정의), Belonging(소속감)을 중심으로, 사역 현장과 학문이 긴밀히 연결되는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총장은 또한 “기숙사는 없지만, 한인 식사과정 학생들에게 100% 등록금 장학금을 제공하고, 사역 실습, 안수 준비, 미국 생활 적응을 적극 지원한다”며, 한인 학생들과 목회자들에게 최적화된 학위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그는 이어 2024년 신설된 전문상담 박사 과정을 소개하고 2026년 10월 한국에서 열릴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 15주년 기념행사 가능성을 전했다. 특히 2023년 5월 졸업생을 시작으로 2025년 12월까지 101명의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 배출이라는 뜻깊은 성과를 앞둔 CST실천신학 목회학 박사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주요 성과를 동문들과 함께 나누었다.

동문회, 기도와 후원으로 모교를 세운다

이날 총동문회는 CST와 동문회의 동반 성장을 위해 동문들의 참여, 기도, 소식 공유, 장학금 기탁을 적극 요청했다. 현재 미국 동문 중 약 6%가 학교 발전기금에 참여하고 있으며, CST는 이것을 30%로 올리는 것이 목표이다. 이 부총장은 한국에 사는 동문 중 20%가 학교 발전기금에 참여하기를 부탁했다.

또한 여행 세미나, 특별 강연 등 학교와 총동문회의 협력 방안도 소개하였다. 특히 CST 의 프랭크 로저스(Frank Rogers, 2026년 6월 한국 방문)와 김남중 교수(2026년 1월 한국 방문) 그리고 이경식 부총장의 한국 방문(2026년 10월)이 예정되어 있어, 학문과 목회 현장을 잇는 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학교 소식의 마지막 순서로는 CST의 현재 모습을 담은 3분짜리 영상이 상영되었다. 영상은 본교 목회학 석사과정 재학생 송영한, 이혜인 전도사가 촬영하고, 국제협력처에서 일하는 손보화 목사(CST Ph.D.재학생)가 구성, 지성서 목사(CST D.Min. 재학생)가 편집했다. 영상 시청 후에는 간결하면서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특별 순서로, 지난 2년간 꾸준히 장학금을 후원해온 보라매열린교회와 육성수 목사에게 감사패가 전달되었다. 이경식 수석 부총장은 학교를 대표해 참석한 조항현 목사(CST D.Min. 재학생)에게 감사패를 증정하였다.

감사와 교제 속에 마무리된 뜻깊은 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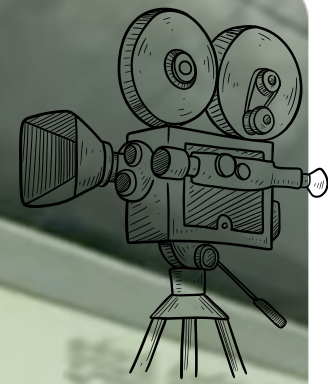
총동문회 이상수 서기(동해교회)는 장소와 만찬을 제공한 계산중앙교회와 회장 최신성 목사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CST에서 준비한 학교 로고가 새겨진 기념 노트와 총동문회가 준비한 스타벅스 기프트 카드를 모든 참석자에게 전달했다. “CST 동문들이 사역하는 모든 곳에서 클레어몬트의 가치를 구현하며 기프트가 되자”는 의미가 담긴 상징적인 선물이었다.

2025년 총동문회는 전용재 전 감독회장의 동문들의 가슴을 울리는 은혜로운 축도로 마무리되었으며, 이어진 점심 식사 자리에서 동문들은 옛 추억을 나누고, 새로운 비전을 함께 그리며 우정을 돈독히 했다. 이번 총동문회는 미국과 캄보디아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모인 60여 명의 동문이 참여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이경식 수석 부총장은 “CST는 지금도 변화와 포용의 신학을 실천하며 성장하고 있다”며, “동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이 학교의 미래를 함께 세워갈 것”이라고 감사와 기대를 전했다.



영상으로 보는 총동문회 소식



The Claremont Korean Alumni Gathering Was Held

2025년 클레어몬트 한국 총동문회 영상 뉴스 (10월 24일 금요일 오전 1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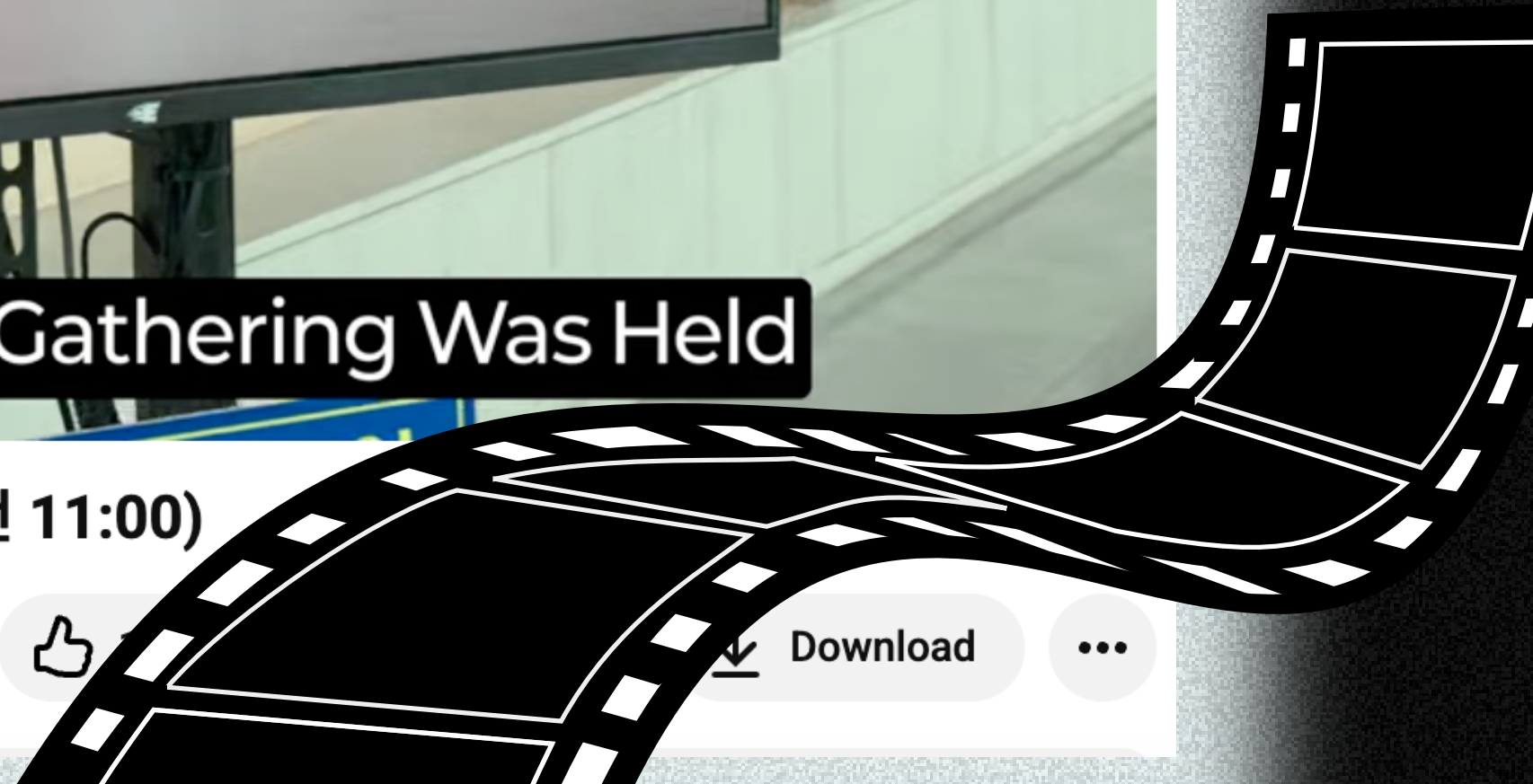


Intensive DMin for Korean Contexts
24 subscribers

Subscribe



Download



CST 한국총동문회(2025)에 참석하며...



〈사진: 이강화 목사, D.Min.
2026년 1월 입학〉

할렐루야! 저는 이번 겨울학기에 CST에서 1학기를 공부하게 될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파송 선교사인 이강화 목사입니다. 신입생도 동문회 자리에 참석해도 된다고 학교로부터 연락이 와서 호기심 반, 설렘 반으로 인천에 있는 계산중앙교회에 참석했습니다. 이 교회는 CST 한국 총동문회장으로 섬기시는 최신성 선배님께서 섬기시는 교회라고 합니다. 처음 방문한 교회인데도 웬지 낯설지가 않았고, 교회 직원분의 친절한 안내로 동문회 장소인 소예배실로 들어서는데 미리 준비한 명찰을 받아 목에 거는 순간 감동이 느껴졌습니다.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아 주위를 둘러보았는데, 30여 명 오신 줄 알았으나 이미 60여 명의 선배님들께서 자리하고 계신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순서 중에는 특히 멀리서 참석하신 분들이 미국, LA, 부산, 철원에서도 오셨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총동문회를 위해 시간을 내주신 모습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에서 함께 배우신 선배님들께서 서로 안부를 나누는 모습이 얼마나 정겹고 아름다운지, 처음 참석한 저에게도 큰 평안함을 주었습니다.

순서에 따라 이경식 부총장님께서 나오셔서 학교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특히 올해 입학생이 95명이라는 보고를 하실 때,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감사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M.Div. 과정에 입학하는 학생 모두에게 장학금 혜택이 제공된다고 말씀하시며, 클레어몬트로 학생들을 보내 달라고 부탁드립니다. 140년의 학문적 전통을 갖춘 학교로서 보여주시는 여유와 자신감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부총장님께서 10개 대학교와 10개 교회를 방문하며 입학 설명회를 진행하시는데, 보다 많은 학생들이 클레어몬트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앞으로 3개월 후에 있을 대면수업을 설렘으로 준비하는데 미리 CST 한국총동문회에 초대해 주시고 환대해 주신 이경식 교수님, 김남중 교수님과 수고해 주시고 섬겨 주신 최신성 회장님과 모든 임원님께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CST Korean IRB 위원회 확대 및 동문 헌신 기념



〈사진: 신규 IRB 위원회 윤득형 박사, 김두영 박사(위원장) 함께〉

CST는 기관윤리심사위원회(IRB)를 최근 확대 구성하며 연구 윤리 강화에 새로운 도약을 맞이했다. IRB는 연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이슈를 점검하여 연구의 윤리성, 타당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핵심 기관이다.

한국어 연구 자료를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CST Korean IRB 위원회는 2012년 학위 과정 설립 이후, 연구 윤리 확보에 큰 기여를 해왔다. 김두영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국어 논문과 프로젝트의 윤리적 검증을 담당하며 CST 연구 수준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왔다.

2025년 10월 20일 월요일(한국 시간 기준), IRB는 동문들의 헌신을 치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졌다. 정푸름, 최주혜, 권진숙, 조인효, 윤득형 박사가 그 주인공이다. 이날 자리에서는 참석이 가능한 분들과 함께 기존 위원과 새 위원으로 IRB를 확대 구성하며 앞으로의 연구 윤리 강화와 지원을 다짐했다.

기존 위원: 김두영, 유상희, 이효주 박사
신규 위원: 김정희, 이상수, 황선필, 허정운, 송민환, 이정철, 권진구 박사

모든 위원들은 실천신학 분야 철학 및 목회학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인간 참가자 대상 연구의 윤리적 검증 과정을 수료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앞으로 10명으로 구성된 Korean IRB 위원회는 CST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과정 실천 연구 프로젝트와 전문상담 박사과정(DPC) 논문의 연구 윤리성을 집중 검토하며, 연구의 엄격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동문들의 전문성과 헌신은 CST 연구의 질을 한층 끌어올리는 자랑스러운 이정표이다.



〈사진: 김정희 박사, 신규 위원〉



〈사진: 이상수 박사, 신규 위원〉



〈사진: 황선필 박사, 신규 위원〉



〈사진: 허정운 박사, 신규 위원〉



〈사진: 이정철 박사, 신규 위원〉



〈사진: 권진구 박사, 신규 위원〉

*송민환 박사, 신규 위원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 사진을 남기지 못했음을 양해 바랍니다.

(Doctor of Professional Counseling) 과정 입학설명회

프로그램 소개

전문 상담 박사(DPC) 과정은 상담학 석사나 관련된 학위를 소유한 상담사를 위해 만들어진 과정으로써 교회, 지역 사회, 학교, 비영리 기관 및 글로벌 커뮤니티의 변화와 치유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학위입니다.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CST)은 목회상담과 영성통합심리치료 분야의 선구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CST는 많은 상담 전문가를 배출하였으며 그중에 현재 미국과 한국에서 교수로서 종사하는 동문의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CST는 이 학위를 제공할 수 있는 독보적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CST의 목회 상담 분야는 목회상담에서 영성통합심리치료 프로그램으로 발전하여 목회 또는 기독교적 상담만이 아닌 초종교적 또는 비종교적 상황에서도 적절한 영성통합심리치료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습니다.

CST의 Ph.D. 프로그램은 CST의 가장 오래된 전통을 자랑하는 학위입니다. 더 나아가 CST는 15년 이상 한인 목회자를 위한 한국어 박사 학위(D.Min.)를 제공해 왔으며, CST의 학위 과정은 충실한 내용, 이론과 실천이 잘 조화되어 자타가 공인하는 과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상담 관련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싶었으나 언어의 문제,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유학의 어려운 관문을 넘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망설이고 있다면, 이 학위 과정은 여러분을 위한 과정입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몇 년의 해외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CST의 전문 상담 박사 과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입학설명회 장소와 일정

중 입학설명회 일정(한국 시간 기준)

학제에 관하여

중 계정

입학설명회

장소: 치유상담대학원대학교
날짜: 9월 27일
시간: 오후 12시 30분
(점심 제공)

9월 20일 (토) 오전 11시
10월 11일 (토) 오전 11시
10월 25일 (토) 오전 11시
11월 8일 (토) 오전 11시
11월 22일 (토) 오전 11시

DPC 과정은 총 36학점 과정이며
(한 과목당 4학점) 2년 동안 5세션이 진행됩니다.
큰 비용을 들여 미국 방문을 하지 않아도 되며
수업은 대면, 온라인, 하이브리드 포맷을 절충하여 섞어 진행합니다.
학위 과정 중 선택적으로 단체 미국 수학여행을 갈 수 있습니다.
졸업생은 CST의 Doctor of Professional Counseling
졸업장을 수여합니다.



설명회 참석 중 링크

지원자격

1. 대학원에서 상담학, 상담 관련분야 등 석사 학위 취득한 자
(심리학, 교육학, 사회사업/복지학, 정신의학, 아동/복지학, 청소년/지도학)
2. 교육부가 인정한 상담학 (또는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상담 경력이 있는 자
3. 한국 교육부가 정한 바에 따라 (1) 또는 (2)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4. 상담학 석사와 더불어 기초 신학 과목(조직신학, 구약신학, 신약신학, 교회사, 기독교윤리)을 학부나 석사 과정에서 이수한 자.
신학 과목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은 치유상담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여
기초 신학 과목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입학원서 등록금 장학금 논문

1. 링크를 통해 원서 작성: <https://cst.edu/apply-now/>
4기생은 11월 말, 5기생은 26년 7월 말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한글로 제공하는 입학 원서 작성 문서를 [여기에서](#) 다운 받으세요.)
2. 등록금과 장학금: 등록금은 한 학점당 미화 \$1,100이며, 입학 허가를 받은 학생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논문은 한글로 쓰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 영어 논문 제출을 원하는 자는 한글 완성 후,
영어로 번역하여 제출 가능, 2명의 교수로 구성된 논문 위원들 지원, 완성 과정에 구술시험

교수진

교수진: 이경식, Frank Rogers, Jr., 정푸름, 유상희, 김용환, 김남중, 김정희, 김지훈, 송민환

문의: 김민정 (minjung.kim@cst.edu / 010-3243-7568)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CST 목회학 석사(M.Div.) 입학 안내

공휴, 정의, 소속감을 추구하는 신학교육 – 새로운 시대의 목회를 위한 여정,
CST에서 목회학 석사 과정을 시작하세요.

M.Div. 재학생 인터뷰 영상



장학금 지원

- 합격 시 장학금 보장
- 자격을 갖춘 지원자에게 3년간 학비 전액 지원



목회 사역지 지원

- 목회 사역지와 연결시켜 줌
- UMC(미연합감리교회) 또는 타교단 목사 안수 과정 지원 및 상담



유학 생활 정보 제공



지원 마감일

- 2025년 11월 1일 – 2026년 봄학기 우선 마감
- 2025년 12월 1일 – 2026년 봄학기 최종 마감
- 2026년 6월 1일 – 2026년 가을학기 최종 마감

지원 요건

항목	내용
지원서, 이력서/CV	온라인 작성
자기소개서	약 1,000단어
영문 성적표	학부 및 대학원 (해당 시)
영문 추천서	학문/전문 2부, 목회/일반 1부
입학지원비	\$50
영어 능력	TOEFL/ IELTS/ Duolingo

Claremont School of Theology는 미국 연합감리교회(UMC) 소속 13개 신학대학원 중 하나로, 공휴(Compassion), 정의(Justice), 소속감(Belonging)을 핵심 가치로 삼고 있는 신학대학원입니다. CST는 성서 해석과 예술적 창조, 자기 성찰과 치유, 해방적 실천과 전통의 통합을 통해 깊이 있는 신학, 살아 있는 목회, 생태적 책임을 함께 배우고 실천합니다. CST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함께 꿈꾸며, 다양성과 겸손을 품고 전 세계 기관들과 연대하여 생명과 정의의 사역을 이어갑니다.

✉ admission@cst.edu

✉ 한국어 문의: kef@cst.edu

🌐 www.cst.edu

🌐 입학 지원 마감일 안내:

<https://cst.edu/admissions/deadlines-requirements/>



CLAREMONT
SCHOOL of THEOLOGY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입학 상담 및 유학 문의 링크 바로가기



클레어몬트 신학대학원 101번째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 배출 한인 학생 구술시험 통과, 2025

CST에서 2025년 12월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할 예정인 한인 학생 5명이 2025년 9월과 10월에 구술시험을 통과하며 중요한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 이들은 각기 다른 분야에서 교회와 사회에 필요한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며, 각자의 연구 주제에서 혁신적인 통찰을 제시했다. 모든 학생은 12월 15일경에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할 예정이며, 앞으로 학문과 목회 여정을 통해 교회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 한태희 목사의 구술시험〉

한태희 목사(D.Min.):

한태희 목사는 급증하는 이중직 목회자들이 겪는 경험과 갈등을 연구했다. CST D.Min. 과정에서 배운 환대(hospitality)와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 신학의 관점에서 접근하며,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 소외, 정체성 혼란, 부분적 회복, 각자도생(홀로 생존) 등 목회자들의 경험을 분석했다. 그의 연구는 상호 환대와 연대의 목회 패러다임 필요성을 강조하며, 교단과 교회가 이중직 목회자들에게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돌봄과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사진: 김용화 목사의 구술시험〉

김용화 목사(D.Min.):

김용화 목사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 청년들의 성서교육 경험을 연구했다. 탈인습적 기독교교육, 상호의존성, 포스트콜로니얼 관점에서 접근하며, 참여적 실행연구 방법을 통해 청년들의 비판적 이해와 공동체적 관계 형성 경험을 분석했다. 그의 연구는 더 참여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성서교육을 위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며, 교회와 목회자들이 청년들에게 보다 적합한 교육과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사진: 이병희 목사의 구술시험〉

이병희 목사(D.Min.):

이병희 목사는 기독교대한감리회 부담임목사 부부가 3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며 경험하는 갈등과 어려움을 연구했다. 상호의존성과 대상관계 이론 관점에서 접근하며,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부담임목사 부부와 교회, 담임목사 간 상호작용 및 가족 내 육아 과정에서 나타나는 감정과 정서적 경험을 분석했다. 그의 연구는 더 상호의존적이고 균형 있는 목회와 가족 돌봄을 위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며, 교회와 목회자들이 부담임목사 부부와 그 가정에 적합한 지원과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사진: 백두산 목사의 구술시험〉

백두산 목사(D.Min.):

백두산 목사는 한국 감리교회 청년들의 소그룹 참여 중단 경험을 연구했다. 포스트콜로니얼 신학과 상호의존성 관점에서 접근하며, 근거이론 기반 질적 연구 방법을 통해 청년들이 경험한 의미 상실, 관계 단절, 개인 중심 영적 실천 경향을 분석했다. 그의 연구는 더 참여적이고 관계 중심적인 소그룹 목회를 위한 중요한 통찰을 제공하며, 교회와 목회자들이 청년들에게 보다 적합한 참여 기회와 영적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했다.



〈사진: 김태광 목사의 구술시험〉

김태광 목사(D.Min.):

김태광 목사는 한국 다문화 사회 맥락에서 이주민 선교에 대한 교회의 인식 변화를 연구했다. 포스트콜로니얼과 다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며, 목회자, 사역자, 이주민과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교회의 한계와 이주민들의 경험을 분석했다. 그의 연구는 상호 긍정 목회(Mutual Affirming Ministry)라는 새로운 목회 모델을 제안하며, 교회가 다양성을 하나님의 선물로 수용하고 포용적 목회를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통찰과 방향을 제공했다.

이들 모두는 각기 다른 연구 분야에서 교회와 사회에 중요한 변화와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 통찰을 제시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교회와 사회의 치유와 회복, 변화를 위한 연구를 이어갈 것이다. CST 는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동문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교회와 사회에 필요한 연구와 실천을 계속 이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이번 12월 졸업을 위한 구술시험을 계기로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학위자가 총 101명이 되었으며, 이를 축하하는 기념 행사를 2026년 10월경에 한국에서 가질 예정이다.

김남중 교수, 교수직 명칭 변경 실천신학 및 목회와 예전, 그리고 설교학 전문성 강화



〈사진: 김남중 교수〉

김남중 교수는 2016년부터 맡아온 ‘목회 실천 교수(Associate Professor of the Practice of Ministry)’ 직함이 최근 ‘실천신학, 목회, 예전 및 설교학 교수(Associate Professor of Practical Theology, Ministry, Liturgy, and Homiletics)’로 공식 변경되었다.

이번 직함 변경은 지난 10월 9일 교수 회의(Faculty Meeting)와 10월 15일 이사회(Board of Trustees)의 승인을 거쳐 확정되었다. 김 교수는 이번 변화를 통해 지금까지의 연구와 학자로서의 활동을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실천신학 분야에서 보다 세분화된 전문적이고 심층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교수는 “이번 직함 변경은 저의 지난 노력에 대한 신뢰와 지지로 받아들인다”며 “앞으로도 실천신학, 목회, 예전과 설교학 분야에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 열정을 다해 헌신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인 박사 프로그램과 국제협력 부학장, 그리고 실천신학 목회학 박사 학과장을 겸하고 있는 김남중 교수는 다문화 및 세대 간 갈등 상황에서 예배와 설교를 통해 새로운 신학적 통찰을 제공하는 연구를 지속해왔으며, 최근에는 글로벌 교회 컨텍스트에서의 예배 갱신과 설교 실천을 주제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자랑스러운 CST 동문 김희헌 박사,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제8대 원장 취임



〈사진: 김희헌 박사, MA '07, MATS '02, Ph.D. '07〉

이어 Claremont Graduate University에서 종교철학 및 신학 박사학위(Ph.D., 2002-2007)를 받으며 학문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김 박사는 미국과 한국에서 목회자로 섬기며, Valley Oriental Mission Church(캘리포니아, Van Nuys), 낙산교회, 향린교회 등 다양한 공동체에서 신실한 사역을 수행했습니다. 또한 한신대학교와 성공회대학교에서 강의와 연구 교수직을 맡아 후학 양성에도 힘써왔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한국기독교장로회 평화통일위원회, 한국민중신학협의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지도적 역할을 수행하며, 한국 현대 신학과 사회윤리에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 29권 이상의 저서를 집필·공동 집필하고, 주요 신학서를 번역했으며 30편 이상의 학술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의 연구와 저술은 신학의 갱신과 정의·연민·소속감이라는 사명을 한국교회와 신학 공동체에 이어가는 길을 보여줍니다.



〈사진: 김진아 박사, D.Min. '07〉

두 분의 헌신과 신앙적 리더십은 모교를 포함한 한국교회와 전 세계 신학 공동체에 귀감이 되며, 앞으로 신학 교육과 교회 사역에서 정의, 연민, 소속감의 사명을 실천하며 신학의 갱신과 교회 공동체의 회복에 새로운 영감과 희망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신학의 갱신과 정의, 연민, 소속감의 사명을 이어가며 한국교회 교육과 신학 발전에 새 지평 열다

CST는 자랑스러운 동문 김희헌 박사께서 지난 8월 한신대학교 이사회에서 제8대 신학대학원 원장으로 선출되고, 9월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에서 최종 인준을 받아 취임하였음을 기쁘게 전합니다. 김 원장의 임기는 2025년 9월부터 2029년 9월까지 4년입니다. 김희헌 박사는 한신대학교에서 신학(B.A., 1985-1989)과 조직신학(M.Div., 1993-1995)을 전공한 후, CST에서 조직신학(Systematic Theology)을 전공하며 Master of Arts in Theological Studies 학위(1998-2002)를 취득했습니다.

김희헌 박사의 배우자인 김진아 박사 역시 CST 동문으로, 2007년 목회학 박사(D.Min.) 학위를 취득한 후 지난 18년간 한국교회의 교육 현장을 헌신적으로 이끌어왔습니다. 현재 한국기독교장로회 총회 교육국장으로 재직하며, 한신대학교 등에서 기독교교육 강의를 통해 교단 신앙교육의 비전과 한국교회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사역 역시 정의와 연민, 공동체 소속감을 실천하는 교육적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CST는 김희헌 박사의 신학대학원 원장 취임과 김진아 박사의 지속적인 교육 사역에 깊은 축하와 감사를 전합니다.

자랑스러운 CST 동문 서영석 박사

협성대학교 부총장(국제·대외협력) 및 신학대학원장 취임



〈사진: 서영석 박사,
94 M.Div. '96 D.Min〉

신학 교육과 국제 협력, 글로벌 리더십의 사명을 이어가며 한국교회와 학계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다

CST는 자랑스러운 동문 서영석 박사께서 협성대학교 부총장(국제·대외협력) 및 신학대학원장으로 취임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기쁘게 전합니다. 서 박사는 1996년부터 협성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로 헌신하며, 미래의 목회자와 신학자, 학자들을 비전과 열정으로 양성해 왔습니다.

CST의 졸업생인 서영석 부총장은 1994년 M.Div.와 1996년 D.Min. 학위를 취득하며, 목회적, 학문적, 그리고 교육기관에서 행정 리더십을 깊이 있게 다졌습니다.

지난 30년 가까이 교육과 행정을 통해 한국 신학 교육의 선도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했으며, 대화와 국제적 협력, 성실한 학문적 실천에 헌신하는 모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 부총장은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며 모교 CST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다음과 같이 전했습니다.

“저는 항상 CST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동문으로서 협성대학교에서 학교의 자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일하면서, CST의 지속적인 성장과 번영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CST가 지향하는 정의, 연민, 그리고 소속감에 기반을 둔 신학적 상상력, 문화 간 이해, 그리고 변화를 이끄는 리더십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CST는 동문 서영석 부총장의 탁월한 업적을 기리며, 그의 평생에 걸친 신학 교육과 국제적 협력에 대한 헌신을 존중합니다. 그의 사역은 CST의 사명이 캠퍼스를 넘어 글로벌 신학과 교회 지도자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CST는 서영석 부총장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앞으로도 한국교회와 학계에서 그의 리더십과 헌신의 여정에 지속적인 축복과 격려를 보냅니다.



〈사진: 왼쪽 앞 줄에서 두 번째, 주수경 선교사가 언더우드 선교상을 수상한 후〉

CST 동문인 주수경 선교사(D.Min. '17)가 제25회 언더우드 선교상을 수상하였다. 언더우드 선교상은 140여 년 전 한국 근대화와 복음 전도에 크게 이바지한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정된 상으로, 국내외 선교 현장에서 오랜 기간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사역해 온 선교사들에게 수여된다. 이 상은 시대 속에서 새롭게 변화하는 선교의 방향을 제시하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영예로운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수경 선교사는 지난 30년간 전문인 선교사로서 의료와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사역을 이어왔다. 그는 전통적인 교회 개척이나 직접적인 복음 전도보다는, 자신의 전문성과 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필요를 채우는 비즈니스 선교(Business as Mission, BAM) 모델을 구축해 왔다.

시상식에는 주수경 선교사의 오랜 여정을 함께해 온 동역자들과 지인들이 참석하여 그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했다. 많은 이들은 그가 보여준 꾸준함과 겸손,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호흡해 온 사역의 깊이에 대해 감사를 전했다.

주수경 선교사는 “우리에게 남아 있는 시간을 더욱 열심히 주를 위해 살겠다”라는 다짐과 함께 지금까지의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또한 앞으로도 맡겨진 사명을 따라 의료와 교육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새로운 세대가 참여할 수 있는 선교의 길을 열어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번 수상은 주수경 선교사의 개인적인 헌신을 넘어, 전문성과 신앙을 통합한 선교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큰 도전과 영감을 주고 있다.

2025-2026년 기부 현황

차세대 영적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귀한 도움의 손길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11월 3일 기준 -

이경식 부총장
육성수 목사
보라매열린교회 (육성수 담임목사)
이종오 박사
이한슬 박사과 이레이첼 박사
LA 연합감리교회
정동제일교회

* 성함은 기부일자 순입니다.

기부총액(2025년 7월 1일부터 2025년 11월 3일 기준): **\$49,900**

- KEF 잔액(1990.03. - 2025.11.) :	\$2,511,654
- KLS 잔액(2018.10. - 2025.11.) :	\$829,898
- General Fund (2024.03. - 2025.11.) :	\$13,728

* 행정 업무로 인해 누락된 기부금 반영은 차월에 반영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Center for Korean American Ministries

- 2025년 1월부터 2025년 11월 기준 -

개인 후원

이병준 회장
이상영 목사

단체 후원

남가주 한인 여선교회 연합회 (Sue Kim 회장)
드림교회 (최요셉 목사)
서부지역연회 (Grant Hagiya 감독)
예수동행교회 (안정섭 목사)
옥스나드한인연합감리교회 (남재현 목사)
월셔연합감리교회 (이영성 목사)
카마리오한인연합감리교회 (이상영 목사)
크리스찬위클리 (조명환 목사)
Cal-Pac 연회 한인 코커스 (이석부 목사)
LA복음연합감리교회 (김호용 목사)
LA연합감리교회 (이창민 목사)

* 성함은 가나다 및 알파벳 순으로 나열한 명단입니다.

기부총액(2025년 1월부터 2025년 11월 기준): **\$14,200**

* 행정 업무로 인해 누락된 기부금 반영은 차월에 반영될 수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